

빠른 정답

1	②	2	③	3	⑤	4	⑤	5	③
6	④	7	④	8	④	9	②	10	④
11	③	12	⑤	13	③	14	④	15	④
16	①	17	③	18	③	19	⑤	20	②
21	③	22	③	23	⑤	24	③	25	③
26	④	27	①	28	⑤	29	②	30	⑤
31	④	32	⑤	33	④	34	②	35	⑤
36	⑤	37	③	38	④	39	③	40	②
41	④	42	③	43	③	44	③	45	④
46	①	47	④	48	①	49	①	50	⑤
51	③								

1주차

(현대시) (가) 정지용, 「유리창(琉璃窓)1」 /

(나) 나희덕, 「성(聖) 느티나무」

(가) 정지용, 「유리창(琉璃窓)1」

투명하지만 차단성을 지닌 ‘유리’의 이중적 속성을 통해, 죽은 자식에 대한 슬픔과 애절한 그리움을 형상화하고 있는 시이다.

(나) 나희덕, 「성(聖) 느티나무」

번개에 맞아 불에 타 죽은 줄 알았던 느티나무가 봄이 되자 다시 잎을 틔우며 생명력을 이어가는 모습을 통해, 느티나무, 나아가 자연의 생명력에 대한 외경을 형상화하고 있는 시이다.

1. [출제의도] 두 시의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정답 : ②

(나)는 죽은 줄 알았던 고목이 ‘봄’이 되어 새 잎을 내는 모습을 통해 나무의 생명력에 대한 예찬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따라서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시상 전개에 기여를 하고 있다.

[오답풀이]

- ① (가)는 설의적 표현이 아닌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상을 마무리하며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③ (가)에서는 ‘어린거린다’, ‘파다거린다’, ‘부딪히고’, ‘날러갔구나’와 같은 시어가, (나)에서는 ‘떨어올리며’, ‘꺼낸다’, ‘피워내다니’, ‘내놓는다’, ‘피들고 있다’ 등의 시어가 동적 심상을 일으키고 있다.
- ④ (가)에는 인간과 자연과의 대비가 없다. (나)는 ‘느티나무’를 ‘그’라고 의인화해 그 생명력을 예찬하고 있다.
- ⑤ (가), (나) 모두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지 않았다. 단, (가)의 경우 마지막 행에서 죽은 자식을 ‘너’라 지칭하며 말을 건네는 듯한 말투를 통해 자식을 잃은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2. [출제의도] 두 시의 소재상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정답 : ③

(가)에서 화자는 유리로 안과 밖이 차단된 공간에서 유리창에 서린 성예를 보며 죽은 자식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유리 너머의 세계는 죽은 자식이 있는 세계이다. 유리가 지닌 투명성으로 인해 화자는 창밖을 응시하며

죽은 아이와 소통을 시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차단성으로 인해 단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나)에서 번개에 맞아 탄 검게 된 나무의 모습은 시커먼 아궁이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죽은 듯하나 스스로 잎을 내며 다른 자연물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있는 고목의 모습은 스스로를 태워 불을 피우고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아궁이의 속성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나)에 대한 감상의 핵심은 고목의 속성에서 아궁이의 속성을 발견하고 그 속성이 동일시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두 시의 소재상의 공통점은 '유리'와 '아궁이'의 이중적 속성, 즉 '유리'의 투명하지만(소통) 차단된(단절) 속성과 '아궁이'의 태워야만(소멸) 불을 피울 수 있는(생성) 속성에 기인한다. 그러나 '발이 묶인 채' 있는 고목은 땅에 뿌리를 내리며 서 있는 고목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아궁이가 지닌 소멸의 이미지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풀이]

⑤ '오래오래 제 살을 달여 내놓는다'는 것은 고목이 불에 탔으나 이듬해 봄, 끝내 잎을 피워내며 생명체를 품어 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마치 '아궁이'가 무엇인가를 태우며 불을 피워야 하고, 스스로 뜨겁게 달구어져야 그 누군가에게 온기를 나누어 주는 것과도 같다. 따라서 '고목'이 자신의 살을 달이는 모습에서는 소멸의 이미지를, 이를 내놓는 모습에서는 생성의 이미지를 엿볼 수 있다. 항상 <보기> 문제는 <보기>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한다. <보기>에 나온 아궁이의 속성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내가 그것을 놓치지 않았는가 돌아보도록 하자.

3. [출제의도] 두 시의 공통점을 파악하여 감상한다. '발이 묶인 채 날아오르는 새'는 뿌리를 땅에 박고 하늘을 향해 가지를 뽀고 있는 나무를 비유한 것이다. 따라서 '푸른 날개'를 뽀고 있는 나무는 그 왕성한 생명력을 드러내는 것으로, '새'는 나무의 생명력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지만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정답 : ⑤

[오답풀이]

③ '외로운 황홀한 심사'는 자식을 잃은 화자의 이중적 심리를 드러낸다. 자식을 잃은 상황이므로 화자는 깊은 고독과 슬픔에 잠겨 있다. 그러나 유리에 어린 영상을

죽은 자식의 이미지로 생각하고 유리를 어루만지는 시간만큼은, 창밖 죽은 자식이라 생각되는 그 별을 응시할 수 있는 순간만큼은 소통과 만남의 시간인 것이다.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그리움과 딱딱함에 순수하게 빠져들 수 있다. 자식의 죽음을 경험한 화자가 그립고 보고 싶은 자식의 모습을 유리에 어린 영상을 통해서나마 느끼고 만날 수 있다면 그 마음이 어떠할까. 일변 몹시 아프고 슬프지만, 그러나 일변 눈물겹게 그립고 황홀한, 그 형언할 길없는 상충의 심리, 모순된 마음을 화자는 '외롭고 황홀한 심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4. 정답 ⑤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3연의 '아!~ 허무한디!', 4연의 '나는~가리라' 등에서 영탄적인 어조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낸다.

[오답풀이]

② '허무한디'의 반복은 시어의 반복일 뿐, 구조적 반복이라고 하지 않는다. 조사의 반복 혹은 조사와 어미의 반복으로 이루어져야 그것을 통사구조의 반복이라고 얘기하므로 반복의 층위를 항상 기억하도록 하자.

5. 정답 ③

[출제의도] 감상의 적절성 판단하기

③의 '내맡긴 신세'는 억압적인 외부 세계에 의해 고통받는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외부 세계와 단절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요 정리] : <보기>에 나와 있는 '독을 차고'는 그의 후기 시이다. 즉, 외부 세계의 단절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선지 중 가장 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③번 선지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보아야하겠다.

6. 정답 ④

[출제의도] 시상 전개 과정 파악하기

1, 2, 3연은 4행으로 이루어진 데 비해, 4연은 2행으로 변화를 주었다. 4연에서는 외로운 혼을 지키기 위하여 독을 품고 살아가겠다는 화자의 단호한 의지가 시행의 변화를 통해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7. 비판적 사고(작품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④

정답해설 : (가)에서는 ‘그 사나이’(화자 자신)가 가엾어 진다고 자기 연민을 보이고 있고, (나)에서는 요기도 못해 배고픈 아낙네들을 딱하게 여겨 ‘빈 광주리야 ~ 오죽 가벼울까’라고 연민을 드러냈으며, (다)에서 ‘늦된 그 나무’를 어딘가 안쓰러워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8. 비판적 사고(작품 이해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④

정답해설 : ‘추억처럼’이란 말은 동경의 의미를 품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6연에서 화자는 우물에 비친 자연에서 추억과도 같은 과거의 자기를 발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실적 자아의 미운 모습과는 다른, 과거 속에서의 순수한 자아를 보는 것이다. 과거의 순수한 자아는 곧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이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6연을 자신에 대한 화자의 존재 탐구가 끝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보다는 우물 속에 투영된 자신을 미워하고 가엾어하며 그리워해 온 이제까지의 내적 갈등이 6연에 이르러 우물이라는 모태와도 같은 공간 속에서 과거의 이상적 자아를 발견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극복되고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적절할 것이다.

[오답피하기] ① ‘외판’, ‘홀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는 1연에 나타나 있는 화자의 행위가 우물이라는 공간에 화자 자신의 내적 모습을 투영해 보는 행위임을 의미한다. ② 2연에서 우물에 비친 자연은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화자가 지향하는 순수한 세계를 상징한다. ③ 3~5연에 나타나 있는 ‘미워져 돌아갑니다 → 가엾어집니다 → 미워져 돌아갑니다 → 그리워집니다’라는 심경의 변화는 모두 화자 자신에 대한반응이므로 자아 성찰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9. 추론적 사고(작품 간의 표현 특징 비교) [정답] ②

정답해설 : [A]에서는 개들이 짚어대는 소리와 아낙네들의 말소리를 ‘짚어댄다’의 반복과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의 반복으로 병치해 놓음으로써 운율감이 조성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B]에서는 그런 특징을 찾아볼 수 없다.

10. 추론적 사고(시어 및 시구에 대한 해석) [정답] ④

정답해설 : ‘산에서 내려 ~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부

분은 화자가 ‘그 나무’를 정서적으로 자신과 동일시하는 대목이다. 여기서 ‘난만한 봄길’은 화자 자신이 겪었던 젊은 시절의 혼돈이나 방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자는 ‘그 나무’도 자신과 같이 미처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늦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기에 늦된 ‘그 나무’와 함께 ‘늦깎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 곁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이다.

[오답피하기]

- ① ‘시오릿길’은 군산 목은장과 선제리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 말이다. 이 공간은 선제리 아낙네들이 고단한 생활을 이어가는 삶의 현장이다.
- ② 화자는 선제리 아낙네들이 서로 의종게 공동체적 유대감을 형성하며 끼리끼리 살아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러한 모습에 대해 ‘얼마나 의종은 한세상이 터냐’라고 공감을 표하고 있다.
- ③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이라고 수식이 되어 있으므로 ㉠의 주체는 화자가 주목하고 있는 ‘그 나무’이다. 따라서 ㉠은 ‘그 나무’가 꽃을 성화(성스러운 불)처럼 피우면 좋겠다는 화자의 기대를 담은 시구로 볼 수 있다.
- ⑤ ‘늦깎이 깨달음’이라는 앞서의 시구와 관련하여 ‘소신공양’, ‘소지’라는 종교적 색채를 띤 시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불타는 소신공양’은 만발한 벚꽃들의 가을 모습이고, ‘가난한 소지’는 자신과 동일시되는 늦된 ‘그 나무’의 가을 모습이다. ‘그 나무’와 자신이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조금이나마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11. [출제의도] 각 시 사이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정답 : ③

(나)에서는 ‘충분히 흔들리자 ……’, ‘이 세상 어디서나 ……’, ‘영원한 눈물이란 ……’ 등의 통사 구조가 반복되었고, (다)에서는 ‘슬픔의 …… ~라’라는 구조가 반복 사용되어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오답 풀이]

가끔 ②번 같은 경우를 착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확실한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야 한다. ‘불이 도로 피었다’, ‘겨울이 지나 봄이 되었다.’ 등과 같은 서술이 있어야지, 본인이 시를 읽으니깐 시간이 흘러간다는 생각은 하지 말도록 하자.

12. [출제의도] 시어의 시적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정답 : ⑤

‘수’는 ‘어지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면의 고통에서 벗어나 희망을 엿보게 하는 방법’으로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것은 ㉔의 ‘기도’로, ‘슬픔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의미로, 내면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역할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화자가 힘이 들 때 하는 행위라는 측면에서 유사하다.)

13. [출제의도] 시를 바꿔 씀으로써 나타나는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정답 : ③

[A]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는 <보기>의 시에 비해 ‘금실 은실 청홍실’, ‘정갈한 자갈 돌의 강변’ 등의 시각적 이미지와 ‘가슴속 아우성’이라는 청각적 이미지, 즉 감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구체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보기>를 통한 텍스트 변화 문제는 항상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떠올리도록 하자.

14. [출제의도] 시에 나타난 발상과 표현의 유사성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정답 : ④

㉑에서는 부정적인 사물을 긍정적인 도구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역설적 표현과 발상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우리의 일상 직관과 맞지 않는 비상식적인 것도 우리는 충분히 ‘역설적’이라고 한다. ‘나는 지기 위해 달리기 경주를 한다.’ 등과 같은 사례들까지 포함하므로 역설적은 그 층위가 넓다는 것도 잘 알아두자. ㉒의 경우도 ‘모순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㉑과 같은 표현과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15. [출제의도] 소재를 시로 형상화하는 과정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정답 : ④

<보기>의 이야기에서 ‘의사가 되려는 김 양의 소망’은 시에서 ‘고통과 설움의 땅 훑훑 지나서 / 뿌리 깊은 별

판에 서자’ 중 ‘뿌리 깊은 별판’으로 형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16.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 ①

정답해설 : ‘대구’란 비슷한 어조를 가진 구절을 짝지어 표현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다. 이 시에서는 2연의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이나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3연의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비슷한 어조를 가진 두 행이 짝지어 있기 때문에 화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② ‘새순’이나 ‘꽃’이라는 시어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혹독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계절의 흐름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의인화로 잘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자는 냉소적 태도가 아니라 낙관적 믿음을 바탕으로 한 강인한 의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상한 영혼이여’나 ‘고통에게로 가자’ 등에서 ‘영혼’, ‘고통’ 등의 관념적 대상을 찾아낼 수 있는 있다. 하지만 추상적 관념어들이 구체적인 대상인 양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지, 이들이 공감각적인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이 작품은 과거 회상이 아니라 자연 현상이나 인간 세상의 이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어조는 화자 자신을 반성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거리가 멀다.

17.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 ③

정답해설 : ‘새순’은 ‘밑둥 잘리어도’ 돋는 것이며, ‘등불’은 ‘이 세상 어디서나’ 켜지는 것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갈대의 밑둥이 잘리는 것은 갈대에게 일종의 고난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잘려도 ‘새순’이 돋는 것은 갈대가 이러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존재인데, 세상 어디에서도 ‘등불’은 켜진다는 것은 세상이 어두워지더라도 밝은 빛은 존재한다는 뜻이다. 어둠은 고난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등불’은 고난 극복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오답피하기]

- ① ‘밑둥’은 밑동을 가리키는 말로 나무줄기에서 뿌리에 가까운 부분이므로 ‘밑둥 잘리어도’가 바로 실존적 위기감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개울’은 ‘등불’과 마찬가지로 세상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는 것이므로, 오히려 고난 극복의 가능성을 상징한다.
- ② ‘한 계절’ 동안 ‘넉넉히’ 흔들린다고 했으므로 상한 갈대가 감내할 수 있는 시간이다. 따라서 극한 상황을 비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A]와 [B] 모두에서 현실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비판하고자 하는 어조를 찾을 수 없다.
- ⑤ [A]에서 [B]로 전개되면서 화자의 낙관적 믿음과 의지적 태도가 반복적으로 변주되고 있으므로 소극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

18.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③

정답해설 : <보기>에 따르면 3연의 ‘바람’은 막을 수 없는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3연은 계속해서 ‘영원한 눈물’과 ‘영원한 비탄’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즉 고난을 막기 어렵다고 해서, 이러한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은 ‘고통과 설움의 땅’을 지나서 도달하는 공간이므로 긍정적 공간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을 영원한 운명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공간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① 1연에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존재도 ‘뿌리 깊으면 야’ 새순이 돋는다고 했다. 뿌리가 깊다는 것은 그만큼 튼튼하고 굳건하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 역시 굳건한 이미지를 가진다. ② ㉠의 ‘별판’은 갈대가 뿌리를 박은 채 자라야 하는 지상의 공간이므로 ‘하늘’에 대응하는 현실적 삶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 ④ 3연에서 화자는 고통이 영원하지는 않지만, 그 고통을 피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으므로 ㉠은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맞서야 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⑤ ‘손’은 ‘캄캄한 밤’과 대비되고 ‘오고 있’는 것이므로, 희망을 암시하는 존재이다. 또한 ‘별판’에 서서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므로 ㉠은 희망이 예비된 공간이다.

19. ⑤

[출제의도] 복합 지문을 활용하여 고전 작품과 현대 작품의 공통적인 정서를 파악하기 문이다.

[해설] (다)는 입을 여인 절망적인 체험을, (라)는 유년 시절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20. ②

[해설] 풀빛이 푸르른 상황 속에서 이별의 슬픔이 부각되고 있는것이지 이를 감정이입이라고 보기는 어렵난.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21. ③

[출제의도] 문학 작품에서 주제를 형상화하는 언어의 기능 파악하기 문제이다.

[해설] ‘가토리안’은 시적 화자의 ‘기대감’이 아니라 화자의 상황과 맞물려 ‘절망감’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22. ③

[출제의도] 상황에 맞는 한자성어 파악하기 문제이다.

[해설] ㉡의 ‘도사공’은 ‘배의 우두머리’로 넓은 바다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을 잘 나타내는 한자성어는 ‘설상가상’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23. ⑤

[출제의도] ‘소녀의 부끄러움’과 유사한 정서 파악하기 문제이다.

[해설] 임제의 ‘무어별’은 아리따운 소녀의 수줍은 내면 세계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한시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24. ③

[출제의도] 수필의 표현이나 구성상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라)에는 비약과 압축적인 표현이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25. ㉓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가)는 아이가 죽어 함께하지 못함으로 인한 슬픔, (나)는 가지 못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다)는 임과의 이별에서 오는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세 작품 모두 대상의 상실에서 오는 정서를 담고있다. 따라서 정답은 ㉓이다.

26. ㉔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산새'는 죽은 아이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시어로 그리움의 대상이고, '제비'는 삭주 구성을 가지 못하는 존재로 시적 화자의 처지와 유사하다. 따라서 정답은 ㉔이다.

27. ㉑

[출제의도] 발상 및 표현을 묻는 문제이다. ㉑은 역설적 표현 방식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㉑에서는 역설적 표현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㉑이다.

28. ㉕

[출제의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묻는 문제이다. ㉕은 시적 화자가 '삭주 구성'에 가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로써의 함축적 의미를 갖는다. ㉕의 '은하물'은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시련이나 장애물이다. 따라서 정답은 ㉕이다.

29. ㉒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와 기능을 묻는 문제이다. ㉒는 시적 화자가 간절히 그리워하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부정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답은 ㉒이다.

30. ㉕

[출제의도] 시의 표현 방법을 묻는 문제이다. (다)에서는 '푸른'이라는 색채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할 만한 다른 색채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㉕이다.

31. [시적 화자의 심리나 태도]

정답 : ㉔

[정답 해설]

(가)의 화자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한편 입을 그리워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무관심한 남편의 태도를 원망하면서도 임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다. (다)의 화자는 임에게 말을 하지 못하고 헤어져 안타까워하고 있다. (가)의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㉔). (나)에는 경물이 시름없다고 표현되어 있고, (다)에는 배꽃을 비추는 달이 화자의 슬픈 정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32. [시어의 비유적 의미 파악]

정답 : ㉕

[정답 해설]

(가)의 '잔월'은 화자의 결백을 믿어 줄 절대적 존재이고, (다)의 '달'은 화자의 슬픔을 더욱 심화시키는 존재이다(㉕).

[오답 피하기]

㉓ (나)의 달에는 입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가 반영되어 있는데 비하여 (가)의 달에는 임의 이미지와 관련이 없다.

33.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 : ㉔

[정답 해설]

(가)의 시에는 임금이 화자를 다시 불러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다.(㉔)

34. [표현 및 발상의 이해]

정답 : ㉒

전제된 구절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뒤에 이어지는 구절도 당연히 부정적인 것을 찾아야 한다. 즉, '~인데/이므로 ~하랴'의 논법으로 된 발상과 표현을 찾아야 한다. 원근을 모르니 당연히 소식을 알 수 없는 것과 곡식이 풍요로워야 할 가을에도 먹을 것이 부족한데 봄에는 오죽하겠느냐하는 표현은 서로 유사하다.

35. ㉕

[출제의도] 형식상의 특징 파악하기.

(가)는 향가, (나)는 시조로 시가 마지막 부분에 ‘아아’, ‘어즈버’라는 감탄사를 사용하여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4음보를 찾기 어렵다. ② ‘나’, ‘우리’ 등 화자가 표면화된 부분이 없다. ③ 둘 다 기서결의 3단 구성이다. ④ 둘 다 정서 표현 중심이다.

36. ⑤

[출제의도] 자료를 바탕으로 시구의 의미 이해하기.

㉞은 고려 왕조의 멸망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고려 왕조를 다시 찾겠다는 의지와는 거리가 멀다.

37.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 ③

정답해설 : 제3수에 나타난 시적 대상은 ‘순풍’과 ‘인성’으로 표현된 세상의 순박한 풍습과 사람들의 어진 품성이다. 반면에 제4수에서는 시적 화자에서 즐거움을 느끼게해 주는 자연인 ‘유란’, ‘백운’, 그리고 그리운 임금이 시적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적 대상을 반복적으로 다룬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① 작자 자신을 ‘초야우생’(시골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천석고황’(자연 속에서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생긴 깊은 병)을 통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연을 벗 삼아 자연에 묻혀서 안분지족의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며 전 6곡의 주제인 ‘자연 속에 묻혀 살고 싶은 소망’을 환기하고 있다.
- ② 제2수에서는 자연을 벗 삼아 태평성대 속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면서 허물이나 없기를 바라는, 화자가 자신의 삶에서 바라는 개인적인 소망에 화자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이런 화자 자신에 대한 관심이 제3수에서는 세상의 순박한 풍습과 사람들의 어진 품성을 강조하며 사회로 확대되고 있다.
- ④ 제4수에서는 골짜기에 있는 ‘유란’과 산에 있는 ‘백운’을 통해, 제5수에서는 산 앞에 있는 높은 대(臺)와 그 대 아래 흘러 가는 물, 그리고 떼 지어 오락가락 날아다니는 갈매기를 통해 화자가 머물며 바라보는 공간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연

에서 느끼는 감흥을 심화시키고 있다.

⑤ 아름다운 자연에서 느끼는 감흥이 초장에서는 봄과 가을의 한 계절씩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것이 중장에서는 사시, 즉 일 년 사계절로, 종장에서는 영원한 것으로 시간이 점층적으로 확대되어 표현되어 있다. 이런 점층적인 표현을 통해 자연 속에 묻혀서 살고 싶어 하는 자연 친화적인 삶의 추구라는 전 6곡의 주제 의식이 집약되어 표현되었다.

38.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 ④

정답해설 : ‘갈매기’는 자연 풍경을 구성하고 있는 한 대상으로, 이것에는 자연에 동화되어 살고자 하는 화자의 심정이 투영되어 있다. 하지만 현자를 뜻하는 ‘교교백구’는 이 작품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지 못하고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교백구’는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삶과 반대되는 삶을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화자의 무심한 심정이 투영된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오답피하기]

- ① ‘연하’는 안개와 노을을, ‘풍월’은 바람과 달을 뜻하는 말이다. 둘 다 화자가 동화되고자 하는 자연으로서 화자에게 만족감을 주는 소재이다.
- ② ‘순풍’은 세상의 순박한 풍속을, ‘인성’은 사람들의 어진 품성을 나타내는 말로 화자가 바라는 세상의 모습을 말해 준다.
- ③ ‘유란’은 그윽한 난을, ‘백운’은 흰 눈을 뜻하는데 모두 화자가 바라보며 만족감을 느끼는 대상이다.
- ⑤ ‘화만산’은 산에 가득한 꽃을, ‘월만대’는 대에 가득한 달빛을 뜻한다. 꽃과 달빛은 모두 자신이 벗이 되어 즐거움을 느끼고자 하는 대상인데, 이것들이 산과 대에 가득하다는 것은 아름다운 꽃과 달빛이 가득한 자연의 풍경에서 화자가 충만감을 느끼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39.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 ③

정답해설 : ‘도산십이곡’은 제3수의 세상의 순박한 풍속과 사람들의 어진 품성을 말하는 부분에, 제4수의 임금을 잊지 못하는 마음을 말하는 부분에 유교적 가치를 존중하는 화자의 자세가 드러나 있다. 그리고 작품 전체를 통해 한 개인으로서 자연과 벗하여 살고 싶은 소망이 드러나 있다. <보기>는 ‘성군의 가르침을 노래

하리라'는 부분을 통해 유교적 가치를 존중하는 화자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셋째 문단의 '전원의 즐거움을 얻게 되면~늙은이가 되리라.'에서 전원의 별장과 고향에서 즐거운 삶을 누리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도산십이곡'과 <보기> 둘 다 자연에서 지내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이 드러나 있는데 이것은 지배층의 핍박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사는 삶이 즐거워서이다. 또한 둘 다 은둔의 삶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보다는 번잡한 세상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한가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 ② '도산십이곡'의 화자는 현재 머물고 있는 자연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다. <보기>의 화자는 이미 부친에게서 별장을 물려받았으며 자연 속에 위치한 이 집에서 전원의 즐거움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두 화자 모두 불운하다거나, 살림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렵다고 말하기 어렵다.
- ④ '도산십이곡'의 화자는 초야[시골]의 자연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 어떤 삶의 물질적 여건이 필요함을 상정한다거나 강조하고 있지 않다. <보기>는 별장에서 전원의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데 전원생활이 가능하게 된 것은 별장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된 계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를 통해 삶의 물질적 여건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⑤ '도산십이곡'의 화자는 속세가 아니라 자연 속에 있다. <보기>의 화자는 현재 속세에 살고 있으며, 전원에는 별장에서의 삶을 통해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지며 살기를 소망하고 있으므로 속세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내용은 부적절하다.

40. 비판적 사고(작품들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②

정답해설 : (가)에서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이치에 따라 살아가는 자세를, (나)에서는 수심과 슬픔에서 벗어나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며 살아가는 자세를, (다)에서는 자연 친화와 학문 수양을 추구하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즉, 세 작품은 모두 화자의 삶의 자세에 대한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학문에 대한 관점은 부단한 학문 수양의 의지를 드러낸 (다)에만 나타난다.
- ③ 대상과 하나가 되려는 의지는 (가)~(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 ④ (다)는 자연애와 학문 수양을 아우르는 화자의 이상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으나, (가)~(다) 어디에서도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 ⑤(가)~(다)는 모두 현실을 기반으로 한 삶의 자세를 드러내는 작품으로,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심리는 찾을 수 없다.

41. 비판적 사고(작품의 서술 및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④

정답해설 : [4]에서 두 번에 걸쳐 글쓴이가 스스로 묻고 답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하늘의 법칙을 따라야 함을 깨닫게 한 것은 아니다. [4]에서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이치를 따라야 하는 것과 그렇게 해야만 하늘의 법칙에 부합함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③ 우 임금도 방문하는 나라의 풍속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신의 복식을 바꾸고, 공자도 사냥한 짐승을 서로 비교하는 노나라 관례를 따른 사례를 제시하여 관습을 전혀 따르지 않고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 ⑤ 이 글에서는 따름의 대상이 다른 것, 관습을 따르지 않고 살 수 없는 것, 많은 사람이 하는 대로 따르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 등 따름의 여러 측면을 언급하면서 궁극적으로 이치를 따라야 한다는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42. 추론적 사고(시적 대상의 이해) 정답 ③

정답해설 : 이 작품에서 뎡동어미는 수심에 차 앉아서 슬피 우는 청춘과부에게 깨달음을 주어 수심과 슬픔에

서 벗어나 화전놀이를 즐기게 만들고 있다. 이는 청춘과부에게 삶의 활력을 주는 것이므로, 뎡동어미가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뎡동어미가 계획성 있는 삶을 추구하거나 중시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② ‘이팔청춘 이내 마음 봄 춘 자로 부쳐 보고 / 화용 월태 이내 얼굴 꽃 화자로 부쳐 두고 / 술술 나는 긴 한숨은 세류춘풍 부쳐 두고’를 볼 때 뎡동어미와 일행들은 이미 화전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 ④ 청춘과부가 자연의 변화에 관심이 없고 무감각해졌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 ⑤ 청춘과부는 뎡동어미의 충고를 듣고 깨달음을 얻어 인식을 바꾸는 것이지, 가난이 내적 성숙의 계기가 된다고 믿게 된 것은 아니다.

43. 비판적 사고(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③

정답해설 : [B]의 초장에서는 영원히 푸르름을 간직하는 ‘청산’을 예찬했고, 중장에서는 이와 대구를 이루어 밤낮으로 쉴 새 없이 흐르는 ‘유수’의 영원성을 예찬했다. 그리고 종장에서 ‘청산’과 ‘유수’라는 자연물의 영원성과 불변성에 빗대어 끊임없이 학문을 수양하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만고상청(萬古常靑)하리라’라는 구절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A]는 전반적으로 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 ② [A]는 인물의 독백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화는 찾을 수 없다.
- ④ [B]에 ‘그치지 아니한고’라는 의문형 어구가 나타나지만 반복은 아니며, 화자도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지 심리적 갈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 ⑤ [A]와 [B]에는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44. 추론적 사고(세부 정보의 이해) 정답 ③

정답해설 : ㉞은 뎡동어미가 청춘과부에게 좋은 일, 나쁜 일을 따져 팔자를 한탄하지 말고 운명에 순응하라고 충고하는 말로, 상황에 따라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오답피하기]

- ① 여기서의 '바람'은 풀을 흔들리게 하는 자연 현상으로 정처 없이 떠도는 인간의 운명과는 관련이 없다.
- ② 각자의 경로대로 움직이는 수많은 별은 다양한 시대나 나라를 비유한 것이다.
- ④ '사람 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뎡동어미는 '마음 심 자가 제일이라 단단하게 맘 잡으면'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사람 눈'은 성숙한 인간의 안목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의 안목으로 보아야 한다.
- ⑤ (다)의 화자는 천석고황(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몹시 사랑하고 즐기는 성벽)에 빠진 채 자연 속에 묻혀 달관한 삶의 모습을 보이며 만족하고 있는 것이지, 자신의 선택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다.

45. 비판적 사고(작품간의 공통점 파악) ④

정답해설 : (가)에서 작가는 '멋'을 중심으로 생각을 펼치며 욕심 없이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배우는 삶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특히 글의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삶의 자세가 잘 드러나 있다. (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에 자족하며 학문을 수양하고 인격을 수양하며 사는 것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체험에 대한 사실적 전달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 ②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가)에서 세상을 괴롭게 여기는 사람들, 복을 찾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글쓴이의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난다.
- ⑤ 규범적 가치라기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에 만족하는 삶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46. 창의적 사고(작가의 관점 적용) ①

정답해설 : (나)의 화자는 세속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인격 수양(학문 수양)을 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 이 화자가 (가)의 글을 읽고 느낀 점을 찾는 것이다. (가)에서 작가는 가을을 맞아 멋을 중심으로 삶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연상하고 있다. 멋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규정들, 삶을 번뇌와 괴로움으로 여기는 사람들, 복을 찾으려 애쓰는 사람들에게 대해 작가는 비록 소박한 삶이지만 살아있음에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멋이라 했다. 결국 (나)의 화자나 (가)의 작가나 '욕심 없이 자족하며 아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빈 칸에는 이러한 내용을 가치 평가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오답피하기

- ② (나)의 화자나 (가)의 작가는 인간의 이욕에 매여 사는 삶에 대해 비판적이다.
- ③ (나)의 화자는 자신의 소박한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다.
- ④ (가)의 작가는 행복이란 찾을수록 멀어진다고 하며 구태여 복을 찾으려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 ⑤ (가)에서 사람들이 기이하거나 허황한 것을 좋아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47. 비판적 사고(표현상의 특징 파악) ④

정답해설 : (가)에서 작가는 자신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드러냄에 있어서 옛사람의 작품을 인용하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작가의 괴로움에

대한 인식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작가는 현재 자신의 삶에 자족하고 있는 사람이다.

오답피하기

- ①글의 마지막 부분 ‘어째 세상이 괴롭다 하느냐’, ‘-- 찾으려 함이니, 슬프다, 복을 찾는 사람이여.’에서 특히 이러한 영탄조의 문장을 확인할 수 있다.
- ②글쓴이는 2문단에서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바로 이어서 자신이 대답하고 있다.
- ③‘우주를 자적하면 --우주는 슬픈 속이었다.’, ‘시를 읊을 --물이 있으니’ 등에서 대구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멋, 그것을 가져다 어떤 이는 -- 오늘 밤엔 멋이다.’는 문장에서는 대구를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이 다양함을 보여 주기도 한다.
- ⑤‘--하더라, 되는구나, 있다 하라, --이라, 삼노라’의 서술어에서 예스러운 말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에 ‘유위전변, 자적, 회의, 속, 아, 일상, 서’ 등의 한자어가 곁들여져 고풍스런 느낌을 주고 있다.

48. 추론적 사고(필자의 의도 파악) ①

정답해설 : (가)의 작가가 행복으로 여기는 것을 찾는 문제이다. 가을의 분위기를 느끼며 네 활개를 펴고 잠든 모습이나 자적하면 멋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마음의 흐름대로 따르는 것(③)을, 글의 뒷부분 ‘한 바리 밥과 -- 복이 족하지 않은가.’에서 책 읽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②)을, ‘시를 읊을 동쪽 -- 허물할 이가 누군가.’에서 자기 처지에 만족하는 것(⑤)을, 마지막 문장의 ‘다만 알려고 함으로써 멋을 삼노라’에서 세상 이치를 알아 가는 것(④)을 행복으로 여김을 알 수 있다.

49. 비판적 사고(작품의 종합적 감상) ①

정답해설 : B에서 말하는 ‘허다영재’란 선인들의 가르침에 따라 자기 수양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한다. 또한 A에서 ‘허물이나 업고자’ 하는 것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자신의 삶에서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B의 ‘허다영재’는 이러한 A의 삶의 태도를 비판하기보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여길 것이다. ‘현학적(銜學的)’이란 ‘학식의 두드러짐을 자랑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체로 잘난 체하는 태도를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주로 쓰는 말이다.

오답피하기

- ①A의 초장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보여주고 있기에 ‘연하’와 ‘풍월’은 향유 대상이다. D에서 화자는 ‘청

산’과 ‘유수’처럼 그치지 말아 만고상청(萬古常靑)하겠다고 했다. 즉, 언제나 푸른 산과 그치지 않고 흐르는 물처럼 학문을 수양하고 인격을 닦겠다는 것이기에 이는 깨달음을 주는 자연물이다.

- ③C의 구절은 책을 읽으며 사는 삶에서 무궁한 즐거움을 찾는 것이고, E는 학문을 하며 살다 보니 늙는 줄도 모른다는 것이기에 상통하는 면이 있다.
- ④D의 ‘그치지 말아’의 대상은 학문 수양과 인격 도야이다. 그러므로 C에서 ‘만권생애’의 학문 수양과 관련이 있다. ⑤B에서 말한 것처럼 ‘어진 인성’을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E에서 말한 ‘우부’ 즉, 어리석은(평범한) 사람들마저도 자기수양이 가능한 것이다.

50. 추론적 사고(다른 작품에의 적용) ⑤

정답해설 : A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즐거움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삶은 소박할지라도 이에 만족하며 자족하는 삶인 것이다. 그런데 ⑤의 누항사에서는 먹을 것이 없을 정도의 가난한 삶에 치이는 화자의 삶이 나타나 있다. 비록 이러한 가난속에서도 충심은 잊지 않고 있다 하지만 화자는 자신의 삶에 자족하기보다는 고통스러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51. 어휘, 어법(문맥적 의미의 파악 및 적용) ③

정답해설 : ④의 ‘대중이 없다.’는 뚜렷이 정해진 기준이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런데 ‘좌지우지하다’는 제 마음대로 주무르고 주도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기에 이와는 거리가 있다. 나머지의 단어들은 ‘뚜렷이 정해진 것이 없다’는 의미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기에 ④와 어느 정도 유사성이 보인다.